

삼위일체 대축일:

2017 년 6 월 11 일 (가해)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70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의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69)

봉헌 (340)

성체 (165)

파견 (83)

2017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

- 1 구역 :** 장 글라라(구역장), 유 마리아,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켄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 이 마틸다, 이 그레이스,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신 엘리자베스.
- 2 구역:** 김 유스티나(구역장), 김 헬레나,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장 올리안나, 김클라라, 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릅다, 김 유스티노, 김 요아킴, 고 안나.

" 주교님 한국 미사가

9 월 10 일로 정해 졌습니다"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6/4/17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이 요한
6/11/17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이 요한
6/18/17	유 요한	김 유스티나	이 요한
6/25/17	박 니콜라스	이 바오로	이 요한

영어독서: Stephanie Limon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6/4/17	\$280	\$66	\$500

미사책 대금:\$50

성당 청소 봉사자 스케줄 (5/6/17 이후 봉사자와 문의사항은 이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 오후: 3 시

6/3/17	김유스티나,김유스티노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6/10/17	홍 마르고, 홍 아네스	정 바오로, 정 릿다
6/17/17	이 그레이스,장 올리안나	이 요셉, 이 데레사
6/24/17	김 요아킴, 고 안나	이 요한, 한 다니엘
7/1/17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김 마론, 허 루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나를 바꾼 편지

김 발렌티노 "Cafe 인생은 아름다워" 대표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일입니다.
“종로 김!” 폐쇄병동 스피커가 저를 부르네요. 편지 한 통이 왔나 봅니다.
전방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스물세살의 큰아들이 보낸 편지네요.
병실 바닥에 앉아 뽀뽀뽀뽀 쓴 편지를 읽습니다. 때는 2010년 7월,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두 장의 편지였는데 두 번째 장에서 저는 그만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다른 환우들을 생각해 아무리 울음을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의 50년 삶을 박살낸 문장을 봤기 때문입니다.
“... 아버지는 나의 반짝이는 별, 나는 아버지를 반짝이게 하는 밤하늘.” 그 순간 제 두눈과 심장은 폭발하는 거 같았습니다. 대체 누가 별이고 누가 밤하늘이란 말인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며 눈물을 흘치면서 편지를 썼을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에서 저를 살리고픈 애끓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저는 껌데기만 아버지일 뿐, 아들이 진짜 아버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누구도 제 울음을 막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는 피눈물을 그쳤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지만 제게는 치사랑이 맞습니다.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 ‘무지개’에 나오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란 말도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향(香) / valentino

바보 학교에서 / 나 바보만 따로 가르치는 독선생님께서 / 먹구름 속에서 소나기가 퍼붓던 어느 한여름 날 / 세상에 큰바람이 불어야 한다며 / 바람 풍凰 자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시다가 /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나무가 어떤 향나무인지 아시는가?” / 뜬금없이 물으셨다. / 바보답게 커다란 두 눈만 소처럼 하고 있으니까 / 독선생님께서 는 허허허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 “향나무는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향이 좋다네! / 그걸 아는 사람들은 향나무를 집에서 키우다가 향이 그리울 때면 / 향나무에 날카로운 송곳이나 칼로 깊은 상처를 내서 / 그 향이 올라오기를 기다린다네...” / 나 바보는 그 순간 / 내가 살면서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모두 향내 나는 향나무 같아서 /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 소나기 먹구름과 함께 / 엉엉 한참을 크게 울었다.

공동체 소식

봄 하마йка & 야드 세일- 6월 4일

지난 주일에 있었던 봄 하마йка 행사는 형제, 자매님들의 적극적인 참가로 성황리에 마칠수 있었음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주신, 형제 자매님들과 야드세일을 위해서, 봉사하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물품을 도네이슨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재 재난구복 후원금 전달

지난 주일 야드세일에서 수익금 \$526 과 신부님께서 후원하신 한인공동체 자선 후원금 \$500 을 합쳐서, \$1,026 을 후원 형제님 가족에게 지난 금요일 임원진들이 우리 한인동동체를 대신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후원 형제님 가족들이 하루 속히 화재 재난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다시 할수 있도록 많은 격려 와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한인 공동체 임원회의: 6/11, 오후 7시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를 6월 11일, 오후 7시에 사제관에서 가지고자 합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교리 공부

건진 교리 공부는 6월 11일, 주일 미사후에 한시간씩 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진 교리를 받고자 하시는분은 박 니콜라스 형제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체조배: 7/6/17, 오후: 6시 30분

지난 6월 1일 성체조배에 참석해 주신 형제, 자매님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귀한 성시간 동안에 함께 기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7월 6일에 있습니다.

전 신부님 영명 축일행사는 7월 23일 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에 대한 근원적 '깨달음'을 몇 번쯤은생각합니다.'깨달음'을 찾아서 산으로 가거나 책을 잡거나 아니면 고수를 만나거나 합니다.
'깨달음'은 구도의 끝일 수도 있지만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안 깨달으면 또 어떨습니까? 그 누구도 세상을 다 깨닫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의 좁은 생각으로 '깨달음'은 '깨닫다'가 어원이죠. '깨닫다'는 전체적 '깨다'와 부분적 '달다'의 합성이고요.쉽게 말하면 '달은 것을 깰 때 깨달음은온다'는것입니다.
깨닫기 위해 뼈를 깎는 고행과 태산보다 큰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네 인생은 나를 '달는' 게 과연 무언지 똑바로 알고 잘 '깨면' 거기서 '깨달음'의 자유를 조금은 맛볼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더러 시인이라 부르는 분들께그러지 말라고 부탁할게요. 제게 사람 인(人) 자가 어울리는건 딱 하나, 죄인(罪人) 김발렌티노. 요즘은 바닷가 모래알처럼 지은 죄들을 찾는 재미로 사는 '행복한 죄인'이지만요. 하하하 알렐루야!
죽다 살았다 / valentino 예수는 / 다 죽었다가 / 다시 살아났다.

나는 / 반 죽었다가 / 겨우 살아났다.

서울 주보에서

바티칸 특별전.....

땅에서도 이루워 지소서: 한국 천주교의 유산

바티칸 특별전, 기간: 9. 9. 2017 - 11. 17. 2017

230년을 이어온 한국 천주교의 발자취와 교회 유물들이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바티칸 박물관에서 오는 9월 9일부터 11월 17일 까지 전시 될 예정입니다. 전시는 9월 9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 성전에서 개막 미사로 그 막이 오릅니다. 9월 9일은 183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조선 대목구 설정 소칙서를 반포한 날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저희 성당에서는 주교님 한국미사가 9월 10일에 있습니다.